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강에서 건진 아들 성경: 출애굽기 2장 1~10절

Tag:

1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2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 가 갈대 사이에 두고

4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멀리 섰더니

5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8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랴 내가 그 값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출2:1-10)

레위 사람이 레위 족속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다. (아므람과 요게벳) 임신하여 아들을 나오니 그 아들이 매우 잘생겼다.

(어린아이 잘생기기 쉽지 않은데, 그가 잘 생긴데는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

20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행7:20)

23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11:23)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눅2:52)

행7:20, 히11:23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그 부모는 모세를 숨겨 키우라는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그를 3개월이나 숨겨 키웠다.

(아마 그 부모가 모세에게 울지 않도록 과도하게 단속하는 바람에 모세에게는 말더듬 현상이 왔을지 모른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울음으로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는 어쩔 수 없는 부모의 강압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제약을 겪게 되었다. 이것이 후일에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하고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일종의 한계상황이 됨. 사람마다 트라우마가 있고, 트라우마는 오직 사랑으로 치유되고 극복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작동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강압하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나치게 거대해 졌기 때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됨.

다만, 노예의 신분으로 목축업을 하면서 그렇게 됨.

이것은 요셉의 계략 때문임. 그는 자신의 민족이 애굽과 섞이는 것도 원치 않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간섭 당하거나 적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음. 계획적으로 애굽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고센땅에서 하게 함.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왕 바로가 신경쓰지 않는 사이에 거대한 민족

이 되었고 애굽을 위협할 정도의 세력이 된 셈이다.

그래서 애굽왕은 이 사실을 알고 태어나는 사내아이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아이를 몰래 키우는 것은 모험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믿음이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몰래 키우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미리암의 예언이라고 야살의 책에 기록됨.)

아마도 미리암은 왕궁의 공주와 그 시녀들의 행로를 잘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모세의 동네에 공주의 궁(별장)이 있었을 것이고, 미리암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의 생명을 구할 방도를 계획했을 것이다.

(야살의 책에 나타난 모세의 구출작전)

애굽의 제도는 특이해서 왕족은 왕의 자녀들끼리만 혼인하는 법이 있었고, 왕과 결혼하는 공주에게도 통치권이 있었으며, 그녀가 낳은 자녀는 왕자가 되었다. 그로 인해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서 왕자가 된 셈이다.

*십계에서는 모세가 히브리인인 것이 비밀로 되어 있지만, 야살의 책에는 공공연한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야살의 책이 더 객관적이다.

아무튼 애굽왕 바로는 철저하게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왕자 중에 이스라엘 사람을 낳히셨으며, 그것은 바로 바로왕의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처럼 사람의 통치에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으며,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자와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간의 전쟁임을 알 수 있다.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모세를 통한

구원사역이 성사된다. 만약 어느 누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사람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아멘.)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위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방도를 모색한다. 결국은 이집트 병사를 죽이게 되고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된다.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가 왕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민족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바로왕의 심정을 매우 거스르는 일이었을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바로왕은 모세를 그냥 두면 않되리라 판단하게 되었고, 체포하여 사형을 명하게 되었다.

구원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된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마귀를 대적하라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

Tag:

95.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4:7)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이 보우하신다. 보호하시고 도우신다.

-마귀를 대적하라(97번 말씀이 더 정확함.);분명한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마귀의 의도에 대적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적법으로 편법을 이기고, 부정과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정결케 하라. -경건하라.

96. 베드로전서 4:7-8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4:7-8)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인류의 출현 자체가 우주적으로는 마지막이다.

-베드로의 종말 감각은 당시의 역사와,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개선되어야 하고 혁신이 필요한가?; 그렇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정신 차렷. 영적으로 깨어라.

근신;경건하라. 몸을 건강하게 지켜라. 규칙적으로 생활하라.

-규칙적 생활은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다. 규칙적 생활은 우선 자신을 위해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등으로 넓혀질수록 복되다. 헌신을 다짐했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에 열정이 빠지면 사랑인가? 열정이 죽었다면 죽어야 할 때가 된 것.

97. 베드로전서 5:7-9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벵전5:7-9)

-염려는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보우하신다.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말고, 영적 전쟁 때문에 고난당하라. 둘 중에 하나.

98. 요한1서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1:9)

99. 요한계시록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1:8)

100. 요한계시록 3:20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